

엘비투스, 두경부암 치료제로 확대 승인

독일 Merck의 한국법인은 <엘비투스>가 식약청으로부터 재발 및 전이성 두경부편평세포암 (SCCHNa) 환자의 1차 요법에 대한 사용을 확대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.

엘비투스는 앞서 국소 진행 두경부편평세포암중에서 방사선 요법과 병용할 수 있도록 허가됐으며, 두경부암의 최초의 표적치료제로 2008년 11월 유럽의약품 당국(EMEA: European Medicines Agency)으로부터 재발 및 전이성 두경부편평세포암 (SCCHN) 환자의 1차 요법에 대한 사용을 승인 받았다.

2008년 9월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EXTREMEb 연구 결과에 따르면, 백금 기반 항암 화학요법과 <엘비투스>를 병용하면 중앙-전체 및 무진행 생존기간이 연장되고 반응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3개월에 달하는 중앙-전체 생존기간이 약 7개월에서 10개월로 증가해 중 사망 위험이 20% 감소했으며 중앙 무진행 생존기간이 70%, 반응률이 80%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김영주 전무는 “엘비투스는 재발 또는 전이성 두경부편평세포암(SCCHN) 환자의 생존기간을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장시켰다”며 “엘비투스가 두경부암 환자 및 암전문의들에게 생명연장의 희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국내에서는 해마다 약 3000명의 두경부암 환자가 발생하며 그중 40%는 재발 또는 전이성 두경부편평세포암 중 환자로 구분된다.

Merck의 한국법인 머크주식회사와 머크어드밴스드테크놀러지스는 의약과 액정, 생명과학에서부터 시약, 기능성 안료 및 화장품 원료 등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.

의약분야에서는 1999년 심혈관 및 대사질환을 위한 전문의약 사업부의 국내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며 2005년 6월 대장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단일 표적 항암제인 <엘비투스>를 발매했다. <고우리 기자>

<화학저널 2009/02/03>